

여야, 재보선 열전 돌입...노원 병 본격 격돌

허준영·안철수 등록...“일꾼론” “견제론” 맞서

노원 병은 安, 영도·부여청양은 與 “우세” 분석

4·24 재보선 승리를 향한 여야 간의 열전(熱戰)이 시작됐다.

4일부터 이를 일정으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허준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계동에 마련된 허 후보 사무실에서 최고 위원회의를 열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국민행복국가의 중심적 시험대”라며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1일 후보를 낸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선거 상황실을 열었으며 오는 8일 부산, 10일 충남에서 각각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요청했을 경우 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 슬로건으로 “지역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근 새 정부의 ‘인사 등을 고리로’ ‘정권경종론’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내부의 권

력지형 변화는 물론이고, 야권 발(發) 세력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여야 모두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관심은 안 전 서울대 교수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당선 여부

에 쏠려 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올 경우를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우선, 안 전 서울대 교수가 노원 병에서 당선되면 현재 민주통합당 중심의 야권 구도의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안 전 교수의 국회 진입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과 함께 야권의 지각 변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밝힌 출마의 변에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혁신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과 함께 새정치의

이름으로 견제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노원 병 보궐선거는 노원만을 바꾸는 지역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전국선거”라며 “저는 감히 안철수의 당선은 국민의 승리라고 말씀드리다”고 했다.

또한, 김무성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지사가 당선, 새누리당에 들어오면 여당 내부의 세력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의 유력한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 전 지사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 새로운 세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초반 관세를 보면 서울 노원 병에서는 안 전 교수의 승리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은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정태홍 서울시장위원장이 출마한 서울 노원병과 민병렬 최고위원이 나선 부산 영도, 천성인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출마한 부여·청양 지원에 나섰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보 등록합니다”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후보들이 4일 오전 서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접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 정태홍 통합진보당 후보,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염복뉴스



원(236만주)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자택 전세권 12억원, 예금 102억6000만원, 자동차 8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랩 주식 236만주 중 그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주며 나머지 50만주는 ‘안철수재단’의 신탁 주식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의 재산은 27억9055만원, 납세액은 1억2020만원이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의 재산은 3억1599만원, 납세액은 151만원이었다. 통합진보당 정태홍 후보의 재산은 8793만원, 납세액은 20만원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



그동안 컷-오프(예비경선)를 통한

민주 “한곳이라도 건지자”...저인망식 선거전

의원 127명 전원 영도, 부여·청양 등 지원 나서

민주통합당은 4일 4·24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127명 의원 전원을 영도와 부여·청양에 투입하는 전당적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단 무공천 지역구로 정한 서울 노원병 외에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자체 후보를 내놓고 한 석이라도 건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보선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해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비대위 회의

각 개척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인 배재정 의원을 영도, 김동철 의원을 부여·청양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한 데 이어 재보선 지역을 의원들이 동(洞)별로 책임지는 자인망 방식으로 구석구석을 훑도록 할 방침이다. 의원들로부터 60만원씩 걷어 후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현장 바닥에서는 ‘지역 일꾼론’, 중앙당의 고공전 차원에서는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고리로 한 ‘경제살리기’를 키워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공전에서는 새누리당의 경제살리기에 맞서 ‘박근혜 정부 경종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독선을 막고 독주를 견제하려면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못 할 줄 몰랐다는 것이 시중의 일반적 얘기”라며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실패로 귀결되고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안철수 재산 1171억...안랩 지분 90%

허준영 27억·김지선 3억

4·24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4일 오전 후보 등록을 통해 117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 따라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노원 병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액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1171억6046만원, 납세액은 26억4466만원이었다.

안 후보가 신고한 재산 총액 1171억원 중 안랩 주식은 1056억

원(236만주)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자택 전세권 12억원, 예금 102억6000만원, 자동차 8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랩 주식 236만주 중 그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주며 나머지 50만주는 ‘안철수재단’의 신탁 주식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의 재산은 27억9055만원, 납세액은 1억2020만원이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의 재산은 3억1599만원, 납세액은 151만원이었다. 통합진보당 정태홍 후보의 재산은 8793만원, 납세액은 20만원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호남 당권주자 단일화 ‘찾잔속의 태풍’?

이용섭 “꼭 이뤄내야”

강기정 “더 지켜보자”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 후보 등록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정(북구 갑), 이용섭(광산 을) 의원의 단일화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주류 주자인 김한길 의원의 대세론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반전 카드는 후보단일화 없이 는 강기정, 이용섭 의원의 도전은 ‘찾잔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용섭 의원은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의원은 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나는 물론 강 의원도 승리가 어려워진다. 후보단일화가 시급하다”며 “시기와 방법 모두 강 의원이 정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당권 구도가)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당권 도전은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고 지난 대선에서 상처 입은 호남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의원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계문, 이목희 후보의 출마 여부 등 아직 당권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거리를 뒀다.

그동안 컷-오프(예비경선)를 통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내세웠던 강 의원은 단일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일 전후,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후보단일화가 무산,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김한길 의원과 각을 세웠던 당내 주류 세력으로부터의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분열의 주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이후,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후보단일화에 나서면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매개로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사람은 당권주자로, 한 사람은 광주시장 후보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아합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전망이다.

한편,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추미에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한 심경을 이르면 5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여야 ‘6인 협의체’ 첫 실무회의

경제민주화·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여야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6인 협의체 회의’ 준비를 위한 첫 사전 협의회를 갖고 양당 공동공약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등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민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각각 60개 안팎의 법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90%가량 입법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법안,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전

환 관련 11개 법안, 검찰개혁 관련 6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양당 공동공약 37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연금 폐지 등 국회채신 법안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채권공동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열화되어 화(火)로 변화**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갈하고 눈알이 아파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임대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6층고급주택

▶병/의원, 약국, 커피숍,편의점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매매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